

기획특집

제주도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 활성화 방안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서창배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관광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2010년 5,739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6,500만 명, 2015년 8,3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왜 중국경제와 중국인 해외관광객에 주목하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대의 고도 성장을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강화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수출규모 세계 1위, 무역규모 세계 2위, 외환보유고 세계 1위 등을 기록 중이다.

또한,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0년 12월 IMF가 발표한 자료(Gauging China's Influence)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1% 포인트 상승할 시 전세계 GDP는 약 0.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경제는 미국경제의 침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 고위관료들의 말 한마디에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연착륙 또는 경착륙 여부를 놓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해외관광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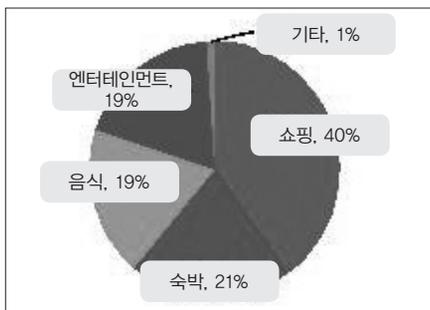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2010년 5,739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6,500만 명, 2015년 8,3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소비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4월 중국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11 중국인 해외관광발전보고)에 따르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액은 480억 달러로서 세계 4위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여행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소비지출이 일본의 3배에 달하고, 해외여행자의 수도 미국인들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2020년이 되면 한국과 일본을 찾는 해외여행자의 1/4이 중국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 수의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인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그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소비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중국인 해외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소비하는 지출비용 중 40% 이상을 쇼핑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1·참조), 일본인 관광객(22%)의 약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는 1인당 평균 1,558달러에 달해 미국인(1,292 달러) 및 일본인(1,072 달러) 관광객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참조).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제주도에 있어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그림1〉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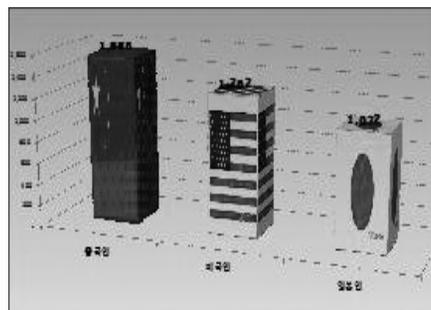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유로저널」, 2011.5.10.

〈그림2〉 2010년 외국인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단위: 달러)



자료: 한국관광공사

2. 중국골프산업의 발전 현황

골프가 중국에 전파된 것은 19세기 말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그동안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은 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0년 1월 22일, 허웨이(何文義) 중국체육산업발전연구중심 주임은 “중국의 스포츠 및 관련 산업 규모는 향후 2조 위안(약 3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중국의 스포츠·레저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골프장 건설 및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성(廣東省)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골프인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에는 최소 75개에서 최대 100개의 골프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소득수준 향상과 골프인구 증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골프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골프인구는 2009년 300만여 명에서 현재 450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참조). 이에 따라, 골프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3%에서 0.34%로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의 골프인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연평균 30%씩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골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5년이 되면 중국의 골프인구는 총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1〉 중국골프시장의 발전과정, 현황 및 향후 전망

기간	주요 발전 내용	비고
1982	중국 최초 골프장 건설 발표	심천CC
1984	중국 최초 골프장 설립	中山温泉CC
1984~1994	중국내 골프장 수: 16개	
1995~2003	약 170개 골프장으로 급성장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중인 골프장: 348개 / 7,772개 홀 보유 • 골프인구: 약 30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홀 기준으로 환산 시, 약 432개 골프장 • 2008년 대비 신설골프장 수 11.5% 증가, 골프인구 수는 22.7% 증가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450개 내외로 추정 • 골프인구: 약 45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대비 신설골프장 수: 100개 이상
2004~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승인된 골프장은 10개 내외, 나머지 97%는 비승인(黑戶) 골프장
201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4개 골프장/ 10,506홀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2011 기간동안 건설된 골프장 수만큼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
~2015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700개 예상 • 약 3,000만 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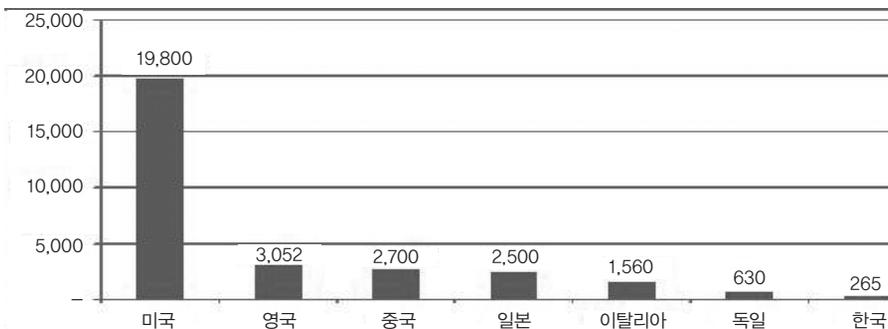
자료: 中國高尔夫產業網(www.chinagolf.cc)에서 발표된 "高尔夫地产十年增长"(2012.3.13); "高尔夫运动和高尔夫旅游的发展分析"(2012.3.19) 참조.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골프산업망(www.chinagolf.cc)에 따르면, 1984년 중산원취엔(中山溫泉)CC의 등장으로 시작된 중국의 골프장 수는 1984~1994년 기간 동안 16개가 건설된 이래 급증하여 2009년에는 348개(7,772홀)를 보유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 최소 454개(10,506홀)에서 최대 60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1·참조). 이처럼 중국골프장에 대한 통계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정식 승인된 골프장이 10개 내외(3%)인 것에 비해 나머지 97%가 비승인(黑戶) 골프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골프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골프장은 1984~2011년 기간동안 건설된 골프장 수만큼 현재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000여개의 골프장이 추가 건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중국의 골프장 수는 약 2,700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전세계 골프시장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기준으로, 전세계 골프장 수는 총 31,548개이며, 그 중 중국(348개)의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이르며 아시아 전체(3,785개)에서는 9.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미국 19,800개(1위, 62.8%), 영국 3,052개(2위, 9.7%), 일본 2,500개(3위, 7.9%), 이탈리아 1,560개(4위, 4.9%), 독일 630개(5위, 2.0%)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한 국가들의 경우 상당부분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서 신설 골프장 건설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전망되는 바와 같이 2015년까지 중국의 골프장이 2,700개로 증가한다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로 증가하여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중국과 전세계 골프장 수 비교 (2009년 기준) (단위: 개)



주: 중국은 2015년까지의 전망치 기준임.

자료: 中國高爾夫產業網(www.chinagolf.cc)

3. 제주도는 왜 중국 골프여행객 유치에 힘써야 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골프인구, 골프장 건설 등 전반적인 중국의 골프시장 규모는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 18일 폐막된 ‘2012년 중국국제골프박람회’에 참여기업의 수도 2011년 360개 기업에서 올해 400여개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약 30% 가까이 증가하였다. 중국국제골프박람회는 2002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골프박람회로서, 중국골프산업의 선도적인 무역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박람회에는 혼마, 타이틀리스트 등 세계 유명 골프업체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총 관람인원의 수도 14,771만 명을 기록함으로써 중국골프시장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광둥성 동관(东莞)지역에는 세계 총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130개 이상의 골프용품 제조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은 골프용품관련 “세계의 공장”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통계기관에 따르면, 골프여행객은 동일지역 관광에 있어 일반여행객보다 20% 이상 더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골프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고 중국골프여행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나날이 커져감에 따라 국제적인 여행사들은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중미국대사관이 직접 나설 정도로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중국국제골프박람회에 미국의 관련업체도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여 미국 골프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중미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은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위한 미국비자 간소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샌프란시스코 관광과 함께 미국 와인생산지와 와인시음 등으로 이어지는 색다른 골프여행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크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괄목할만한 관광국은 2시간의 시차, 베이징과 5시간 이내 거리, 총 7개 180홀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 쇼핑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적극 홍보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해외골프여행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전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도 적극적인 유치작업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골프인구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중국의 골프인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평균 30%씩

급성장하여 2015년이면 3천만 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유치는 제주도 지역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주민소득수준의 증가는 해외골프여행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4,500 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중국의 골프장이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1인당 GDP는 각각 11,524 달러, 11,543 달러, 24,240달러 등을 기록 중이다. 이와 같은 소득수준의 향상은 다시 해외여행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과거와 같은 단순한 일반관광에서 벗어나 각종 스포츠·레저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여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골프산업망에 소개된 <중국골프운동과 골프여행 발전분석>(2012.3.19) 논문도 중국은 현재 골프와 여행이 결합된 새로운 여행형태로 진일보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의 골프인구는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들의 소비수준도 매우 높아 골프산업 외에 쇼핑, 카지노, 요식업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인 미래에는 중국골프도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골프시장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성장 중에 있는 상태로서 귀족스포츠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는 후베이성(湖北省) 최초의 정식 승인된 골프장인 홍리옌후CC(红莲湖高尔夫球场)의 수입구조를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6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동골프장의 연간 수입액은 9,880만 위안(약 178.6억 원)이며, 그 중 회원가입 수입 8,280만 위안(약 149.7억 원), 연회비 600만 위안(약 10.8억 원), 그린피 수입 약 1,000만 위안(약 18.1억 원)을 기록 중이다. 그 중, 그린피 수입을 회원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로 환산하면 대략 33,000위안(약 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내 샐러리맨들의 평균 연간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일반 서민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골프여행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고소비 계층을 유입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주도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주도는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이다. 중국 베이징을 기준으로 제주도까지의 비행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시차도 1시간에 불과하다. 둘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로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도 큰 매력이다. 셋째,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골프를 즐기며 바다 풍광을 쉽게 볼 수 있는 점이다. 넷째,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힘입어 골프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골프장의 18홀 기준 평균 비용(그린피, 캐디피, 식사 등 포함)은 최소 600위안/인(약 11만원)에서 최고 2,500위안/인(약 45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놓고 볼 때, 한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비싼 상태이다. 다섯째, 전체 면적에 비해 제주도가 다수의 골프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에 총 25개의 골프장이 존재하며 회원제 549홀과 대중제 96홀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골프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표2·참조). 여섯째, 중국보다 고급스런 제주도만의 서비스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다수 보고서들은 중국 국내 여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서비스 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표2〉 제주도 골프장 현황

골프장명	규 모	골프장명	규 모	골프장명	규 모
나인브릿지	(18+6)	더클래식	(18+0)	라운	(27+0)
라헨느	(18+0)	레이크힐스제주	(27+0)	롯데스카이힐제주	(27+9)
블랙스톤	(18+9)	사이프러스	(27+9)	세인트포	(36+0)
스프링데일	(18+0)	아덴힐 R&G	(18+0)	에버리스	(18+9)
엘리시안제주	(27+9)	오라	(36+0)	우리들	(18+0)
제주	(18+9)	제피로스	(18+0)	중문	(18+0)
캐슬렉스제주	(18+9)	크라운	(18+9)	타미우스 G&B	(27+0)
테디밸리	(18+0)	핑크스	(18+9)	한라산	(18+0)
해비치(제주)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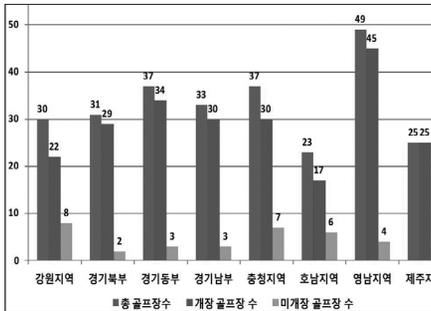
주: 총 25개 골프장, (549+96)홀 규모; ()안은 (회원제+대중제)를 의미.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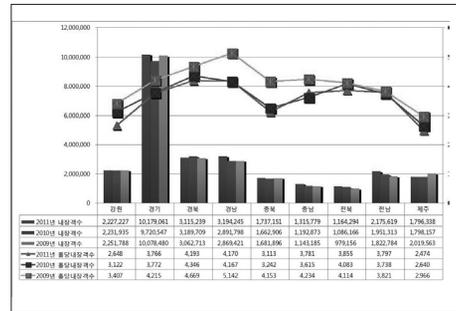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내방객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골프장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직결되는 내방객 현황을 놓고 볼 때(그림5·참조), 제주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12.3%라는 다소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2011년에도 전년대비 -0.1%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섬지역의 특성상 제주도의 접근성이 다른 여타지역에 비해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내방객 감소 추세를 설명하기는 다소 역부족이다.

제주도지역의 골프장은 규모 면에서 볼 때 국내 전체골프장(총 265개)에서 9.4%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와 영남지역을 제외한다면 국내 여타지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상태이다(그림4·참조). 특히 미(未)개장 골프장과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할 경우 오히려 제주도의 골프장 규모가 더욱 앞선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골프장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다는 측면에서도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4〉 한국의 골프장 현황



〈그림5〉 최근 3년간 전국골프장 내장객 현황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12.3월 기준)

이에 향후 제주도가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감동’ 서비스전략을 구사하자! 즉 중국인 골프여행객만을 위한 보다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중심으로 한 살롱개념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즉 “당신만이” 받을 수 있는 소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골프는 아직까지 귀족스포츠로 분류되고 있고 해외골프여행객들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의 상류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다수골프인구는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일회성 여행객들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airport to airport’ 서비스를 철저히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하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과거 저발전 상태의 중국인들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아직까지 보이는 곳이 만연해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자세는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생활회화가 아닌 기본적인 중국어 골프용어를 충분히 습득하자! 한국인들이 중국 골프여행에서 캐디의 기본적인 한국어 골프용어를 듣고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도 언어적인 소통문제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자체로도 유쾌하지 못할 것이다. 다수의 중국인 골퍼들이 영어를 구사하긴 하나 자국의 언어를 활용함에 따라 친밀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최근 다수의 골프장에서 중국어 또는 영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생활회화보다도 골프 기본용어를 집중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하오무(一号木) = 드라이버, 치하오티에(七号铁) = 7번 아이언, 시아포(下坡) = 내리막 라이, 우간동(五杆洞) = 파 5홀 등이다. 또한, 자유여행에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중국어 관광안내원을 주요 지역별로 적극 배치하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본다.

셋째, 지자체와 골프장이 연계된 유치전략을 추진하라! 중국의 대도시 또는 성두(省都)를 중심으로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골프장이 연계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골프인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 또는 각 성두(省都)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골프장별 홍보는 비용은 크게 드는 반면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자체(제주도)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지역별로 몇몇 골프장들이 연합하여 공동 홍보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문화의 특성상 개별 골프장들의 분산된 홍보 전략은 비용만 많이 소요될 뿐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동시에 제주도내 골프장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자칫 역효과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넷째, 골프장들의 개별 전략으로는 중국내 골프장과의 자매결연 등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 복수의 골프장들이 연합하여 MOU를 체결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 오크밸리와 중국 푸춘리조트 회원교류 제휴 등 일부 골프장들을 중심으로 한-중 골프장간의 MOU 체결이 존재하긴 하나 주로 한국회원의 중국내 회원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한-중 회원간의 상호 회원우대(그린피 및 게스트룸 포함)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내 회원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베이징 주변에 소재하는 징난(京南)골프장이 이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골프아카데미 또는 원포인트 렛슨이 가능한 캐디를 육성하라! 중국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집중 육성한다면 미래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비싼 비용에

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외국인 코치 또는 외국에서의 연수를 선호하는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전략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골프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은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것이다. 이 경우, 랫슨을 함께 할 수 있는 캐디의 집중 육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많은 골프장들은 캐디를 A부터 C등급까지 구분하여 캐디 피 등 차별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A등급은 정확한 캐디 역할은 물론이고 원포인트 랫슨까지 가능해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여섯째, 차이나 주간(China's Week) 또는 차이나 데이(China's Day)를 적극 활용하자! 즉 중국인 골퍼들이 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골프장들의 지나친 복장 규제, 타이트한 시간 배정 등을 China's Day를 통해 다소 완화해주는 것은 어떨까? 특히 여름시즌만이라도 남성의 반바지 착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포용하는 문화가 아쉽다.

일곱째, 클럽하우스를 국제화하자! 언어는 물론이고 음식에서도 전통 중국식의 스낵류를 도입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 차이나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인 골퍼의 쇼핑 편의를 위한 이동식 명품관의 운영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카트에서 직접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작은 감동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바다를 보고 동경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많은 골프장들은 매우 유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골프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차원의 중국인 골프여행객 유치 전략은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이어져 영원히 기회를 잃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골프여행객이 일반여행객보다 20% 이상 더 소비한다는 점, 중국인 골프여행객들의 특성 등과 함께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소실대탐(小失大貪)'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JDI**